

준3단계 거리두기, 그럼에도 광주 복구 코로나 ↑ ...“왜?”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열흘 넘게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자치구 5곳 중 북구에서만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감염 속출 배경'으로 관심이 쏠린다.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한 환경에서 방역수칙 위반, 생활체육·종교 등 다중시설을 연결고리로 한 연쇄 집단감염, 잇단 허위 진술, 감염경로 미상·무증상 환자 속출, 인구 밀집도 등이 다수 확진자 발생의 요인으로 꼽힌다.

7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39명 중 해외유입 47명과 다른 시·도 확진자 4명을 제외하면 지역 감염자는 388명이다.

이 중 북구 거주자가 21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

북구 주민은 43만3317명(8월 기준)으로 광주 전체 인구의 29.8%에 불과하지만, 확진자 수는 절반을 넘고 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성림침례교회(56명), 광주사랑교회(41명), 일곡중앙교회(30명), 말바우시장 국밥집(16명), 동광주탁구클럽(15명),

광주전체 지역사회 감염자 중 54.6% 북구 주민...방역중점 관리 방역수칙 위반·허위진술...다중시설 연결 고리로 연쇄 집단감염

배드민턴동호회(14명), 중흥기원(7명) 모두 북구에 있다. 8·15 서울 도심 집회에 참가한 확진자 22명 중 10명도 북구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북구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이유는 밀폐된 장소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확진자 거짓 진술도 공동체 안전을 위협했다. 8·15집회에 다녀온 성림침례교회 교인은 집회 참석과 예배를 3차례 본 사실을 숨겼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교회 교인들이 무더기로 감염됐다. 교회 지하에서 성가대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찬송가를 불렀고, 식사까지 함께하면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졌다.

성가대 지휘자를 비롯해 성가대원 57%가 감염됐고, 이들과 직·간접 접촉한 이들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흥기원과 말바우시장 식당 지포 환자(초기 확진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 집단 발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북구에서는 확진자가 허위 진술로 방역망에 구멍을 뚫은 사례도 잇따랐다.

북구 양산동 일가족 5명은 8·15집회 참석, PC방·교회·도매센터 방문과 검정고시 응시 사실을 숨겨오다 적발됐다.

배드민턴 클럽 초기 확진자도 스포츠센터에 다녀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일부의 허위 진술로 방역망이 뚫린 데다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광주 3차 유행' 기간 중 정확한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25명)와 무증상 감염자(118명)가 많은 점도 북구에서 조용한 전파가 확산된 배경이다.

또 북구가 자치구 5곳 중 인구 밀도가 높고 인접한 자치구의 유동인구가 많은 점,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인구가 6만4855명에 달하는 점도 바이러스 확산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동호 광주시사회장은 "방역 수칙 위반, 거짓 진술, 다수의 이동·접촉 등이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의료·방역체계, 사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으로 발생 규모와 유행 속도를 억제해 나가야 한다"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북구를 방역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주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신봉우기자



다시 열린 '하늘길'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자 7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제주행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광양세관, 수입 목재제품 품질 단속

목재제품 시장 유통질서 확립·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불법·불량한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한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광양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캠핑객이나 음식점에 이용하는 숯을 중점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사한다.

목재펠릿 수입 현황은 (2017년) 2,431,165

톤 → (2018년) 3,445,136톤 → (2019년) 3,002,318톤이다. 합동단속 시 세관직원과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등을 확인한 뒤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전남대병원전공의' 단체행동 지속 결정

현 집행부 사퇴

정부의 의료정책 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파업중단과 별개로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대병원전공의협의회는 7일 파업 중단여부에 대해 전공의들의 개별 의사를 문의한 결과 대부분이 "지속해야한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7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광주전남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의대정원 확대 반대"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파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젊은의사 비대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광주협회장도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파업을 이끌어 간다.

새로운 집행부는 강성으로 분류되고 있어 파업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병원 전공의는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을 비롯해 총 317명이며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젊은의사 비대위 집행부가 사퇴를 함에 따라 광

주지역도 물러난다"며 "일선 전공의들은 파업 중단에 대해 반발이 여전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국시까지 거부하고 있는 중에 선배인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4학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의협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제논의 하기로 합의 했지만 전공의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대해 전공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은 지속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